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04(금) ~ 2023.08.10(목)

제공일시 2023 08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04(금) ~ 2023.08.10(목)

제공일시 2023 08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까지 보조금 차별...한국 전기차 등터진다

- 중국 정부의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최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이어, '프랑스판 IRA'까지 추진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환경법 개정안과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앞으로 특정 국가에서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에 반영하기로 했음
-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친환경 점수'를 줘서, 이 점수의 합계가 60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임 -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가 급속히 시장을 장악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 국내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비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조선일보, 2023.08.08) 정한국 기자

2. "RE100 못하면 年1000억원 탄소세 더 내야"...TCFD 보고서 분석해보니

- 이데일리가 비금융기업 가운데 별도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보고서를 발간한 6개사(SK·SK케미칼·SK실트론·SK가스·KT&G·현대사이트솔루션)를 조사한 결과 SK, SK케미칼, SK실트론, SK가스, KT&G 등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영향을 계량화한 것으로 파악됐음
- 이에 따르면, 탄소다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SK케미칼은 후변화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을 때, 규제 대응에 2040년 기준 연 1730억원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음
- 2040년 SK케미칼이 넷제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비용은 730억원으로, 1000억원의 절감이 가능했음
- SK실트론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탄소 비용은 1만2500달러(한화 1631억원), 넷제로를 달성했을 경우엔 2030년 6400만달러로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음
- KT&G는 2050년까지 기후 시나리오별로 1.5도, 2도, 4도 내에서 탄소가격제에 의한 누적 재무적 영향이 최대 2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

(이데일리, 2023.08.08) 김경은 기자

3. 세계 첫 수소열차 시대 연 독일, 전기열차로 갈아탄다

- 지난해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해 화제를 모았던 독일이, 수소열차 운영을 접고 전기열차로 갈아타기로 방향을 바꾼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음
- 오스트리아 전기차 전문매체 더드리브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 주정부 산하 LNVG 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발표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열차의 운영비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수소열차 운영을 중단하고 전기열차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프랑스 철도차량 제조업체 알스톰이 제작해 '코라디아 아이린트'로 명명된 독일의 수소열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독일 니더작센주와 브레머비르데시 지역에서 운행에 들어간 바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8.08) 김현철 기자

1. 대한상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공신력 높인다...국제 탄소중립프로그램 등록 전걸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반기 개설 목표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지난달 환경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뒤 최근에는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중립프로그램 '코르시아(CORSIA)' 심사를 진행 중임
- 대한상의는 독자적인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KCS)'에 대한 코르시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음
- 코르시아는 국제선 항공의 탄소감축 및 상쇄제도로, 직접적 감축수단으로는 바이오항공유(SAF)가 있고, 그 외 상쇄수단으로는 자발적 배출권(상쇄크레딧)이 있음
- 현재 코르시아는 전세계 9개 기관(미국VCS, 스위스GS, 중국CCER, 카타르GCC 등)에서 발급된 자발적 배출권만 인정하고 있음

(전자신문, 2023.08.06) 조정형 기자

2. 환경부,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기준 정비한다

- 환경 당국이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킬러규제'로 손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함
- 환경부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음
- 현재는 연접개발시 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지만 여러 번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면적으로 기준을 확고히 할 예정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도 국가 재정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바뀌었음
- 또, 공익사업 개발 허가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및 채취 허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이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칠 예정임

(뉴스, 2023.08.07) 고희주 기자

3. 환경부,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의견 수렴

-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음
-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임

(S-저널, 2023.08.11) 이은지 기자

1. 인텔, 녹색 채권 수익 4억2500만달러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할당

- 인텔은 녹색 채권 수익 4억2500만달러(약 5523억원)를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할당했다고 밝혔음
- 인텔의 첫 녹색 채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4억2500만달러는 오염 방지·관리, 수자원 보호,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폐기물 관리 등 다섯 가지 프로젝트에 배정됐음
- 인텔은 녹색 채권 일부를 수자원 재생 시설 지원에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설 시스템 내에서 물을 처리하고 재사용하며, 제조 공정에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음
- 인텔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보충하는 ‘넷 포지티브 워터’, 폐기물 매립 ‘제로(0)’,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50년까지 상류 온실가스 배출 제로 등을 목표로 두고 있음

(조선비즈, 2023.08.04) 김민국 기자
(IT비즈니스, 2023.08.05) 오현식 기자

2. M&A의 절반 이상에서 ESG 실사 결과로 딜 취소...KPMG 설문조사

-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투자자 200명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M&A 딜메이킹 과정에서 ESG에 대한 고려사항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ESG 실사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딜을 취소했다고 하고, 투자자의 3분의 2 가량이 ESG 우선순위에 맞는 기업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음
- 응답자의 46%는 ESG 실사를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ESG 리스크 및 기회 파악이라고 밝혔음
- 또 응답자 중 72%는 향후 20% 이상의 거래에 대해 ESG 실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ESG 실사 빈도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SGToday, 2023.08.07) Mark Segal 기자

3. 미쓰비시, 산토리, ENEOS 바이오매스 기반 페트병 공급망 출시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는 소비재회사 산토리홀딩스, 에너지회사 ENEOS와 함께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페트병 생산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협약을 발표했다
- 미쓰비시에 따르면, 2024년쯤 산토리의 지속가능한 페트병 원료로 사용할 약 2500만개의 페트병을 바이오 파라자일렌(bio-PX)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미쓰비시는 바이오기반 재생연료 공급업체인 네스테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공급된 바이오기반 연료공급망을 제공하고, ENEOS는 정유소의 바이오나프타를 원료로 바이오-PX를 생산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산토리는 바이오페트 수지를 자사 제품을 위한 지속가능한 페트병 생산에 통합할 예정임

(ESGToday, 2023.08.08) Mark Segal 기자

1. 폐전기차 4000만대…한중일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

- 2040년 폐전기차(PHEV·BEV)의 수가 4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중·일 주요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 소재, 에너지기업까지 잇달아 폐배터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음
- 국내 1위 배터리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 화유코발트와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임
- 삼성SDI는 배터리의 핵심 원소재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closed-loop)를 2019년 구축, 2025년까지 중국과 미국 등 해외 공장으로도 이를 이식함
-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등 소재, 완성차 회사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음 중국 기업도 시장 공략을 확대 중이고, 중국 소재업체인 거린메이(GEM)는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전기차 시장의 리더였다가 후발주자로 밀리고 있는 일본 역시 저비용·고품질 희귀금속 회수를 실현하는 축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리튬 70%, 니켈 95%, 코발트 95% 회수가 목표)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꼽고 있음

(헤럴드경제, 2023.08.07) 김지윤 기자

2. 친환경 LPG 선박 나온다…유해가스 배출량 90% 줄어

- 국제해사기구(IMO) 승인으로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선박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대한LPG협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의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 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이번에 LPG 선박 잠정기준이 확정되며, LPG를 친환경 연료로 선정하여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LPG 선박 개발 추진도 실증사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 중임
-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16톤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임
-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 국제기준은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 제정 기초로 활용될 예정임

(이코노믹리뷰, 2023.08.10) 이하영 기자

3. SK E&S·호주 산토스, 동티모르 국영 에너지 회사와 '바유운단 CCS 사업' 협력

- 호주 산토스와 SK E&S가 동티모르 국영 에너지 회사 '티모르 갭(Timor Gap)'을 바유운단(Bayu-Undan)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파트너로 점찍었음
- 산토스에 따르면, 산토스와 파트너사들은 티모르 갭과 바유운단 가스전을 CCS로 전환하는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MOU를 맺었음
- 동티모르 기업을 CCS 사업에 참여시켜 현지 폐가스전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이들은 연내 고갈되는 바유운단 가스전을 호주 바로사 가스전·다윈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와 연계해 CCS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다윈 플랜트에서 이산화탄소로 분리하고, 이를 바유운단 가스전으로 운송해 지하 3km 아래 바다 속에 저장할 계획임

(더구루, 2023.08.09) 오소영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8.04(금) ~ 2023.08.10(목)

제공일시 2023 08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소형모듈원전(SMR)보다 더 작은 MMR까지 개발

-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SMR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기업들은 SMR 기술을 광업 현장의 전기화, 열 처리 및 담수화를 포함한 광범위하게 산업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임
- SMR은 핵분열 기반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3분의 1을 생산함. 축구장 2개 정도 규모의 SMR을 통해 연간 약 1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 폴라리스 마켓 리서치(Polaris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21년 95억 달러(약 12조원)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130억 달러(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
- SMR의 기술은 약 50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 시작됐으나, 천연가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산이 부진했음. 전 세계에 SMR이 설치되는 데는 5~10년이 걸리지만, 직원 수가 12~1만2000명에 이르는 수백 개의 회사가 SMR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화석 연료 발전소는 SMR을 설치하기 위해 개조할 수도 있음. 현재 일부 회사는 광산 현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6개의 SMR을 설치할 계획임. 루마니아의 미 대사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냉각수 시스템, 탈염수, 음용수, 현장 방화 및 행정, 교육 및 창고 건물을 모두 재사용할 수 있음
- 한편, 미국과 영국 정부는 모두 SMR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 5월 미국은 루마니아에서 뉴스케일(NuScale)의 SMR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한 2억7500만 달러(약 3586억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2023년 말, 영국은 기술 개발을 위해 SMR 대회를 진행하고 있음
- SMR전문 기업 중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기업은 뉴스케일(NuScale)임. 이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되었고 약 56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미국, 한국, 폴란드, 루마니아에 SMR을 건설할 계획으로, 다른 경쟁기업과 달리 시제품을 갖고 있음
- 한편, SMR을 보다 작게 만드려고 시도하는 회사도 있음. 약 30명의 직원을 둔 미국 회사인 나노뉴클리어에너지(Nano Nuclear Energy)은 SMR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로(MMR)를 개발하고 있음
- MMR은 시간당 최대 10 메가와트(MW)를 생산하고 대형 배달 트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운송과 배치가 용이하도록 소형으로 설계되어서 SMR보다 더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SMR 개발에는 장애물도 많음. 그린비즈는 소규모 SMR 기업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에 ▲자금 지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라이선스 및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과 리소스가 있다고 지적했음
- 소규모 기업이 기술 구축에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라이선스 과정에는 비용이 많이 지출됨. 뉴스케일(NuScale)의 사업 개발 총괄 부사장인 클레이튼 스콧(Clayton Scott)은 "미국에서 회사를 인증하는 데 5억달러(약 6520억원)가 들었다"고 밝혔음
- 문제는 미국의 경우 규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대규모 원전에 맞추어져 있어서 SMR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임. 그래서 인증 비용이 대규모 원전의 경우에 맞먹게 됨
- 결국 현재 SMR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허가문제임. 그린비즈는 현재 더 많은 저탄소 에너지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SMR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인팩트은, 2023.08.07) 홍명표 기자